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86 | 2026년 03-04월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박해받는 여성들을 회복시키는 데
동참해 주세요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칼럼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그녀의 삶을 되찾아주세요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만든 영향

- 아프가니스탄 / 멕시코

[현장 사역자 인터뷰]

-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기독교 여성들의 상황과 어려움

박해받는 여성들을 위한 기도

[연중 캠페인] Arise Africa 캠페인

Heart to Heart

- 사진으로 돌아보는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WWL) 발표 현장

- 동역자분들의 참여 코너

- 알려드립니다 - 북한선교학교

박해와 선교현장 - 예멘

희망의 선물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주의: 3월 기도월력, 4월 기도월력이
각 장으로 구분됨)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6년 03-04월호 | 통권 286호 |

등록번호-종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지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조남준, 임훈희, 김다운
민태홍, 유진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장요셉, 한로이, 송레아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658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5, 2층 202호(방배동)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 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회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차

03 칼럼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04 그녀의 삶을 되찾아주세요

08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만든 영향

- 아프가니스탄 / 멕시코

10 [현장 사역자 인터뷰] -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기독교 여성들의 상황과 어려움

16 박해받는 여성들을 위한 기도

18 박해와 선교현장 - 예멘

23 [연중 캠페인] Arise Africa 캠페인

22 Heart To Heart

- 사진으로 돌아보는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WWL) 발표 현장

- 동역자분들의 참여 코너

- 알려드립니다

- 북한선교학교

27 희망의 선물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김경복 선교사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사무총장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 여성으로 산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슬람 무장세력들은 납치와 협박과 학대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지리아의 수천 명의 기독교 여성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매일 출근하면 제일 먼저 메일을 엽니다. 수많은 박해 현장의 소식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젠 웬만한 소식을 들어도 그곳엔 늘 그런 일이 생기는가보다 무덤덤하다 못해 이젠 감각을 상실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일 아침 묵상하는 말씀이 나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때론 이름도 형편도 처지도 알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당하는 성도들의 심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4)

나이지리아의 리프카투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리프카투는 밤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슬람 무장세력인 풀라니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자에 의해 강간을 당했습니다. 허를 깨물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3일 동안 극심한 폭행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납치범들은 공동체 전체에게 수치를 안기기 위해 강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잔인한 박해 전술입니다. 여성들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식욕감퇴, 불면증, 무기력, 우울증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리프카투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원수

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현실과 너무 큰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더욱 힘든 부분은 이웃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1년 후 아기가 태어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들을 멀리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숲에서 악령을 데려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슬람 무장세력들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두려움을 심고, 서로의 불신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예수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실이 우리 현실에서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받아도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때론 몇 마디 외치고 나면 온통 머리가 하얗게 텅 빈 것 같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먼 시간적 공간적 괴리를 도무지 좁힐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십니다. 나의 감정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십니다. 이것이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리프카투는 나이지리아 트라우마 센터에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박해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매일 박해 현장의 수많은 소식이 전달됩니다. 이 외침과 부르짖음을 나의 감각으로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손을 모아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제2 제3의 리프카투가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겨 갑니다.

그녀의 삶을 되찾아주세요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 아리아나는 지금 세상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단 그녀만의 일이 아닙니다. 박해받는 수많은 기독교 여성들이 생명의 위협 속에 놓여 있으며, 바로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그 목소리는 아리아나가 예상했던 것만큼이나 살기등등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중앙아시아에서 망명 생활 중인 아프간 그리스도인 아리아나*가 회상했습니다. “오빠가 말하더군요. ‘네가 이슬람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소릴 들었다. 만약 협박이나 억압 때문이라면 내가 가서 널 구해주마. 하지만 네 발로 걸어간 길이라면, 난 내 발 밑에 깔린 카펫이라도 팔아서 너를 찾아가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

한 아내이자 어머니인 아리아나의 머리 위에는 이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살해 협박이 매일같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 송환된다면(이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아리아나는 분명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오빠의 경고는 아리아나를 통제하고 침묵시키려는 거대한 억압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수많은 다른 여성들처럼, 그녀의 자유와 목소리, 그리고 권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침식당해 왔습니다.

억압과 통제의 굴레

고향에서의 삶은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리아나는 학교에 갈 수도,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남성 보호자 없이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탈리반이 아프가니스탄의 권력을 다시 잡은 이후, 여성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오빠가 말했어요. '발밑의 카펫이라도 팔아서 너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요"

아리아나는 강제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새로 맞이한 시댁 식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곧 피의 대가로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 집에 수류탄이 투척되는 테러가 발생했고, 아리아나의 시동생은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결국 가족은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앙아시아의 한 국가에 도착한 후, 가족들은 아리아나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아

나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무슬림 여성이 얼마나 많은 억압과 압제 속에 사는지 보았습니다. 그 비참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저에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리아나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프간 여성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매우 가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늘날에도 박해의 그림자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위험

중앙아시아에서 아프간 여성들을 돕는 현지 파트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난민 여성들조차 지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죠. 이슬람을 떠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생명의 위협이 따르기에,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비밀로 숨겨야만 합니다."

아리아나에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일상의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집주인들은 집을 빌려주지 않고, 아이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낸다면, 그녀는 즉시 강제 송환되어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아리아나는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공포는 고국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중앙아시아에서 망명 생활 중인 아프간 그리스도인 아리아나, 그녀의 머리 위에는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그녀에게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박해는 아리아나의 삶에 교활하고 잔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를 고향에서 내쫓았고, 자유를 뺏었으며, 정체성마저 박탈했습니다. 이제 아리아나는 완전히 '지워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을 겪는 이는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 가려진 고통

전 세계적으로 아리아나와 같은 기독교 여성들은 신앙과 성별이라는 이중의 이유로 표적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가정 폭력, 인신매매, 조직적인 학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지만, 그 고통은 종종 세상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숨겨지곤 합니다. 오픈도어(Open Doors)의 비전은 박해받는 모든 여성이 세상에 드러나고, 가치를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최근 아리아나는 다른 난민 여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는 그리스도인도, 무슬림도 있지만 그들 모두는 신실한 아리아나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말해요. '당신이 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이 고난의 시기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는 아리아나가 중앙아시아의 더 많은 여성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 기독교 자매들에게 그들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르치고,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만이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박해받는 여성들은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여러분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리아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박해와 고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이름은 안전을 위해 가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지워질 위기에 처한 기독교 여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3만 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어려운 국가의 여성 2명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5만 원: 극심한 박해를 피해 탈출한 여성과 그 가족에게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박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박해 생존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시 후원 (계좌로 입금)

KB 국민은행 029301-04-167093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정기 후원

은행이체: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 CMS 선교회

신용카드: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아리아나가 여러분께 간절한 기도 부탁을 전해왔습니다.

-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 속 영웅 에스더처럼 담대함과 용기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여성이 되게 하소서."
-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기독교 여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그곳을 떠나 안전한 나라, 안전한 처소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여러분 덕분에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녀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은 그녀의 남편을 공격했습니다.
박해자들은 아프가니스탄 그리스도인인 자키(Zakie)를 지우려 했지만,
여러분의 후원이 이 분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선물과 기도는 자키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자키의 머리 위로 높은 아파트에서
누군가 부은 탄산음료 병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
가 위를 올려다보았을 때 한 12세 소년이 도망치고 있
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키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화끈
거렸고, 그녀는 서둘러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자
키는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속상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키는 그것이
이 젊은 여성의 정체성과 정신, 그리고 희망을 지워버
리겠다고 위협하는 박해 캠페인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
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키는 남편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후 아프가니스
탄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자키는 "이슬람에서
여성은 항상 열등하고 권리나 특권이 없는 존재로 여
겨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저는 그런 사슬과 결박에서 자유로워졌습
니다. 제 삶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성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자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동안, 그녀의
공동체는 그녀를 가족과 문화를 배신한 '불신자'로만
보았습니다. 곧 다른 어머니들은 "그녀에게 가까이 가
지 마라, 그녀는 나쁜 여자다"라고 말하며 자키가 자신
의 아이들을 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가족
장례식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자키의 가장 친한 친구
조차 그녀를 버리며 이런 가슴 아픈 메시지를 보냈습
니다. "내 남편이 말하길, '만약 당신이 자키와 함께 있
는 것을 다시 보게 되면, 당신의 귀와 코를 잘라내고 쫓
아내 버리겠다'고 했어."

어느 날, 박해는 꿈쩍한 절정에 달했습니다...

위험 속에서

자키는 회상합니다. "저와 가족은 친척 집에 갔었습니
다." "우리가 나왔을 때, 도로에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추
더니 한 남자가 내려서 제 남편을 쏘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했습니다."



떠나기로 한 결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자키는 아기와
부상당한 남편을 돌보고 있었지만, 머무는 것은 너무
나 위험했습니다. 가족은 중앙아시아로 피신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후원이 자키에게 닿고 있으며, 당신의 사
랑과 기도는 그녀가 다른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사
역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키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과 제자 훈
련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과 하나님의 말
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당신의 친절한 선물 덕분에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여
성들은 훈련과 문서,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
니다. 당신의 후원은 이 여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하
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자키는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
났고, 나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모든 상황 속에
서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십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 하나님께서 자키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녀를 다른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통로로 강력하게 사용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 자키는 말합니다. "제 사역과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성경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아직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현장 사역자 인터뷰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기독교 여성들의 상황과 어려움

다음 인터뷰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저희 협력 파트너 중 한 명과 진행한 것으로, 이 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기독교 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 그리고 후원자들로부터 받는 도움에 대해 돌아봅니다.

Q.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 여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기독교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주변화된 사람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이 소수의 여성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르며 그 신앙을 지켜 나갑니다. 이들의 신앙은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여성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대화 상대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만 신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은 가능한 모든 “여성의 자유”를 금지하

는 데 특별히 무게를 두었고, 그 결과 여성들의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요소는, 아프가니스탄 여성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모든 여성은 교육, 고용, 이동, 공적 영역의 활동을 포함해 권리 전반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여성 권리 침해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사례:

- 여자아이들은 6학년을 넘어서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의 십대 소녀들은 종종 단 하나의 운명, 즉 매우 어린 나이에 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 여성들은 대체로 대학교육에서 배제됩니다.
- 여성들은 NGO와 유엔을 포함해 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여성들은 남성 보호자(마흐람) 없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 2024년 8월에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와 몸 전체를 가려야 한다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상당 부분은 남성 보호자를 통해 집행되는데, 여성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남성 보호자들은 탈레반으로부터 경고, 투옥 또는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 여성들을 위한 오락 시설이나 공공 여가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죄로 여겨지는 과도한 사치로 간주됩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헬스장이나 공공목욕탕 등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여성들은 자기 집 안에서, 그리고 친족인 남성과만 상호작용할 것이 기대됩니다.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집 안에 머무르도록 강요되며, 오로지 집안일에만 전념하고, 여가 활동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는 약 200만 명의 과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성이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었거나, 자신을 부양해줄 수 있는 가까운 남성 친족이 없는 경우, 그 여성은 빈곤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거리의 구걸하는 사람 수가 크게 늘어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하는 것이 금지된 가난한 여성들은 구걸로 식량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에 교사, 의사, 과학자,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 여성들은 이제 의료를 포함한 적절한 돌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성들은 오직 여성에게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여성 의사나 기타 돌봄 종사자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비밀리에 따르는 데서 오는 추가적인 취약성까지 더해지면,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 여성들의 처지는 사실상 일상생활과 양립하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기독교 여성의 종교적 정체성이 드러날 경우, 그녀는 물론 가족 구성원들까지 처형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

지는 신앙을 숨기거나, 기독교인 가족과 함께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로 피신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대체로 고향에서보다 더 큰 개인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출신 기독교 여성들의 경우, 이슬람을 떠난다는 사실 자체가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을 동반합니다.

Q.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했을 때,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의 이웃 국가들로 피신했습니다. 이 난민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2021년 탈레반이 국가의 통제권을 되찾았을 때, 수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는지는, 그들이 가진 경제적 여력과 목적지 국가로 향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서류를 갖추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탈레반을 피해 달아나야 했지만 선택지가 거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란, 파키스탄 같은 주변 국가들이 주요한 피신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처지는 불안정합니다. 불과 지난 1년 사이에도 여러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대규모로 추방해 왔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 통치 아래의 위험한 아프가니스탄 현실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규정에 따르면 난민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돌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공식 난민 지위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정적 불안정은 그들을 빈곤과 착취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불법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보통 해당 국가 시민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임대료가 높은 환경에서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난민 지위를 얻고 제한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그 지원은 종종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합니다.

교육을 받은 난민들은 수용국에서 자신의 경력과 동등한 수준의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교사, 의사, 과학자, 변호사들이 청소부, 환경미화원 등 단순 노무직을 매우 낮은 임금으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난민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질 경우,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한 망명 신청자들은 의료비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공식 난민 지위를 받은 사람들은 긴급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고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다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가운데는, 본래 의도했던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고향 밖에 머물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탈레반이 다시 권력을 잡기 전에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중앙아시아로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를 통해). 그러나 탈레반이 권력을 되찾은 이후에는, 해외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여성들에게 해당되는데,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의 취업과 학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약 기간을 넘겨 체류하게 되고, 중앙아시아에 남을 기회를 찾는 과정에서 체류 신분이 불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처지에서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현지 주민들은 난민들에게 경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난민을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난민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시민들의 태도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공동체 안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기독교 난민들은, 이슬람을 떠났다는 결정 때문에 여전히 위험에 놓여 있으므로 신앙을 비밀로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난민 여성들은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이 매우 취약한 처지에 놓입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 안전, 재정 지원을 얻을 가능성은, 모든 아프가니스탄 난민에게 허용되는 제한적 선택지보다도 더 낮습니다.

Q. 기독교인이 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는 왜 삶이 더욱 어렵나요?

중앙아시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상당 부분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을 문제와 유사합니다. 삶의 중심은 가족과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는 아프가니스탄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문화적 규범에 의해 움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맥락에서의 보수적 기대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용국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공동체의 결속이 더 약할 수 있지만, 고향에서 금지되어 있고 중앙아시아 문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신앙을 고백할 때에는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기독교인인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받는 추가적인 압박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주요 압박은 난민이라는 취약성, 여성이라는 취약성,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취약성에 집중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한 난민들은 현지인들에게 착취당할 수 있지만, 여성들은 추가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여성은 거주지를 구하기 위해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이슬람을 떠난 사람으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위협 속에서 협박에 취약해집니다.



Q.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기독교인 아프가니스탄 여성에게 추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성이 기독교인으로서(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경우,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이슬람에서 개종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 개종은 처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만약 처형을 피할 수 있다 해도, 그녀는 여성들이 사실상 집 안에 묶여 지내며 일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이나 남성 친족이 없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남성 동행자 없이 살아가는 여성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삶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난과 빈곤의 삶에 직면합니다.

Q. 오픈도어 협력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이러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기독교 여성들을 어떻게 돕고 있나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한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

문에,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픈도어의 협력자들은 식량 꾸러미, 의료 물품, 연료를 배포해, ‘세 겹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희망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도어 협력자들은 공동체와 만남의 공간을 마련하여, 고립된 난민들이 서로 만나고 새로운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가정 모임은 영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오픈도어는 여성들이 직업 기술을 배워 일하고 약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는데, 이는 법적 또는 불법 체류 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많은 여성들에게는 종종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픈도어 협력자들은 또한 공식 서류 양식을 작성하도록 돕고, 법적 문제를 지원합니다.

Q. 이러한 지원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나요?

오픈도어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기독교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 주는 지원은 그들이 생존하도록 돕습니다. 직업 훈련은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합니다. 아동 교육 센터



는 많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정 모임은 공동체와 소속감, 그리고 영적 양육을 제공합니다. 공식 서류 작성을 돕는 일은 낯선 관료 체계를 상대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덜어 줍니다.

이러한 지원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살아남고 신앙을 계속 실천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겪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특히 여성들에게 남편이나, 복잡한 현실을 헤쳐 나가도록 도와줄 다른 남성 친척이 없는 경우에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Q. 이 여성들과 그 자녀들에게는 어떤 지속적인 필요가 있나요?

기독교인 아프가니스탄 난민 여성들이 가진 필요는 매우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시급한 필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아시아 정부로부터 더 큰 안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 난민 지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공식적인 추방 명령의 형태이든, 또는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군가가 그들의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여 당국에 신고함으로써든, 추방의 위협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 기본적인 의료 지원과 아동을 위한 교육 접근.
- 새로운 문화적·사회적 현실에 적응하도록 돕는 지원.
-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게 하는 직업 훈련.
-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사회적·영적 연결, 특히 아동들에게 필요합니다.
- 불평등과 박해를 헤쳐 나가도록 돕는 지원.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합니다. 또한 기독교 여성은 이슬람을 떠났다는 이유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2026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에서
한국 교회의 북한선교와 통일 준비를 돕기 위한
제13회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소중한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정 및 시간 4월 6일 - 6월 29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진행 형식 온라인(Zoom) 강의 /
오프라인 기도회 및 아웃리치 진행

일정(예정)

주차	날짜 (매주 월요일)	강의 주제	강사
1	4월 6일	개회예배, 오리엔테이션	
2	4월 13일	북한의 정치와 사상	최경희(샌드연구소 대표)
3	4월 20일	북한의 사회와 문화	최 설(북한대학원대학교)
4	4월 28일	북한의 종교와 교회	유관지(북녘교회연구원)
5	5월 4일	북한의 종교 박해 실상	김바울(북한지하교회출신 사역자)
6	5월 11일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북방선교방송)
7	5월 18일	북녘을 바라보는 기도회(DMZ)	
	5월 25일	휴강(대체공휴일)	
8	6월 1일	NGO를 통한 선교와 국제협력	정인수(NKCCC)
9	6월 8일	국내정착 탈북민선교와 통일목회	정형신(뉴코리아교회)
10	6월 15일	제 3국 북한선교 현장이야기	현장사역자1
11	6월 22일	제 3국 북한선교 여성사역 이야기	현장사역자2
12	6월 29일	북한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성도	현장사역자3
	7~8월	비전트립	

회비 - 10만원(DMZ기도회, 비전트립 별도)
-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회비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체 수강의 경우 별도 문의)

접수 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www.opendoor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2월 23일 ~ 3월 31일)

문의 다니엘 선교사 (info@opendoors.or.kr / 050-6722-8448)

박해받는 여성들을 위한 기도

전 세계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지워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침묵 당하고, 정체성은 깎여 나가며,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명의 박해받는 여성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름: 콘차(Concha)*

상황: 기독교로 개종 후
끊임없는 거부해 직면함

지역: 멕시코

처음에 콘차는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은 아이들을 빼앗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들은 그녀의 자동차 타이어를 베어버렸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박해가 만연한 멕시코의 악명 높은 '침묵의 원'에 사는 콘차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직면하는 거부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얻으며,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콘차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저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결코 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곳의 평화를 위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름: 자이라(Zaira)*

상황: 가족에게 구타와 의절,
굴욕을 당함

지역: 아시아

자이라의 박해는 그녀가 첫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돌아온 순간, 오빠가 그녀가 받은 책더미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젊은 여성은 잇따른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어느 날 자이라는 이가 빠질 정도로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또 다른 때는 오빠가 그녀에게 이슬람 신앙 고백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5년 동안 그녀의 가족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이라의 믿음은 강합니다. "당신에게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며 굳건히 서야 합니다."

자이라와 함께 기도합시다

자이라가 임신 중에 겪은 폭력적인 박해로 인해 시력 문제를 겪고 있는 그녀의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이라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름: 응옥(Ngoc)

상황: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남

지역: 베트남

이 작고 회복력 있는 할머니가 최근 몇 년 동안 겪은 고통을 상상하기란 어렵습니다.

응옥은 학대하는 남편의 술에 취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20명의 폭도가 응옥의 집으로 몰려와 이 63세의 여성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응옥(사진 왼쪽)은 딸(오른쪽), 그리고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제 삶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으니 저는 오직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응옥과 함께 기도합시다

새로운 집에 정착하는 응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녀를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응옥의 남편과 다른 자녀들이 그녀의 새로운 그리스도 신앙을 존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예멘 (YEMEN)

기독교 박해지수
3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폭력의 격화, 후티와 이슬람국가(IS)의 영향력 확대, 감시 강화, 경제 붕괴, 급진화로 인해 예멘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 결과 두려움과 고립감, 탈출 욕구가 커졌고 비공식 교제 모임 수집 곳이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조직적인 언론 캠페인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반(反)기독교적 수사를 부추기면서, 신자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포함해 위협 수준과 탄압, 위협이 한층 높아졌다. 토착 교회는 주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신앙을 비밀리에 실천해야 한다. 이들은 배교가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후티 당국, 가족, 급진 단체들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를 겪는다. 부족 정체성은 이슬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슬람을 떠난 개종자들은 지역사회로부터 극심한 압박을 받고 부족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된다. 무슬림과 결혼한 기독교인들은 강제 이혼과 자녀 양육권 상실의 위험에 처한다. 기독교인들도 국가 전반의 인도주의적 위기 속에서 고통을 겪지만, 예멘 기독교인들은 긴급 구호가 우선적으로 모스크를 통해 지역 무슬림에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취약하며, 독실한 무슬림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

예멘 (YEMEN)

국가 정보

지도자 : 라사드 무함마드 알알리미
대통령 지도위원회 의장

인구 : 36,000,000명

기독교인 수 : 소수 (오픈도어 추정)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과도기 상태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	-
무슬림	35,721,000	99.2
힌두교	238,000	0.7
기타	41,000	0.1
	합계	100%

출처 1 *보안상의 이유로 수치를 제공할 수 없다.

2014년, 시아파 소수 집단인 후티 반군이 예멘의 수도 사나아를 장악하며 하디 대통령 정권에 맞섰다. 하디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를 복귀시키고 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연합을 구성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습을 통해 신속한 승리를 예상했으나, 내전은 장기화되었고 인도주의적 위기로 인한 기아와 질병까지 겹치면서 직접적 무력 충돌과 더불어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 유엔개발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빈곤 속에서 인구의 거의 83%가 빈곤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후티의 공격과 이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을 포함한 예멘 내전의 격화는, 악화되는 인도주의적·경제적 위기와 맞물리며 기독교인들에게 삶을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서방의 공습은 후티에

의해 “기독교의 공격”으로 규정되어, 기독교인과 서방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고 청년층의 급진화를 촉진한다. 2025년 5월의 휴전은 큰 완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기독교인들은 분절된 지하 공동체 속에서 극도의 고립 상태에 놓인 채 두려움이 고조되고 국가를 떠나려는 욕구가 커졌다. 이후 기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 신원을 노출하는 조직적인 언론 캠페인이 반(反)기독교적 수사를 확산시키고 위협을 격화시켜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으며, 일부 공동체에서는 신앙에 기반한 성장이 나타나기도 했다.

예멘은 권위주의적 이슬람 공화국이며, 1994년 헌법에 따르면 샤리아(이슬람 법)가 법의 주된 원천이다. 신성모독, 종교 비방, 그리고 비이슬람적 포교는 금지되어 있다. 배교는 범죄이며, 배교자가 배교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슬람 개인 신분법은 무슬림과 배교자 간의 결혼, 그리고 무슬림 여성과 비무슬림 남성 간의 결혼을 금지한다. 비이슬람 종교 단체는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비이슬람 예배 장소의 신규 허가는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체 내용 확인하기

전체 내용은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opendoor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¹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알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베아트리스(Beatriz)가 멕시코의 이른바 '침묵의 원(Circle of Silence)'에서 선교사가 되었을 때, 그녀는 박해가 이렇게 빨리 닥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선물과 기도가 그녀를 지탱해 줍니다.

베아트리스는 끔찍하고 아찔한 위기를 겪었지만, 여러분의 신실한 후원 덕분에 현지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아트리스의 두 살 난 딸은 반려견이 자신의 얼굴을 핥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분 후,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개는 이웃에 의해 독살당한 상태였습니다. 어린 딸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빠졌습니다. 베아트리스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로 사역하기 위해 멕시코의 악명 높은 '침묵의 원'으로 이주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박해는 베아트리스 가족의 심장을 직격했습니다.

이 산악 지대의 적대적인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며, 공동체는 신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베아트리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기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분명했습니다."

몇 시간 후, 베아트리스의 딸은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베아트리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과 용기

이토록 끔찍하고 아찔한 상황에 직면하면 많은 사람이 일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재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4년에 베아트리스는 오픈도어(Open Doors)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으며, 그 이후로 당신의 선물과 기도는 이 용기 있는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베아트리스는 박해 대비 훈련을 받았으며 정기적인 영적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여성들과 함께

하는 그녀의 사역은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베아트리스는 "하나님은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의 많은 여성은 자신이 가치 없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받거나 버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들과 우정을 쌓고 제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기독교인 여성 그룹이 베아트리스와 정기적으로 만나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후원은 그들이 모이는 공간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믿음은 자라나고 있으며, 이 여성들은 자신이 주목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며, 힘을 얻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함께 이 어두운 지역 안에서 희망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박해에 목적이 있다는 것, 예수님조차 박해를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보상은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베아트리스는 말합니다.

"우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이 승리하지 않도록, 그리고 언젠가 이 '침묵의 원'이 '희망의 원'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주세요

- 베아트리스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 멕시코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강한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침묵의 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단 2%뿐입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돌아보는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WWL) 발표 현장

지난 1월 15일(목요일) 오전 10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세미나실에서
언론 기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WWL)
발표가 있었습니다.



ARISE AFRICA

폭력을 멈추고, 치유를 시작합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교회와 함께
폭력적인 박해에 맞서세요.

청원신청

지금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는 국제 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기독교
인을 비롯한 1,600만 명이 폭력의 위협에 노
출되어 있습니다.

보호: 무장 세력의 무분별한 폭력으로부터 이
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것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원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의: 폭력을 자행한 이들을 반드시 기소하고,
정의를 실현할 것

회복: 고통받는 피해자들과 공동체를 위로하고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오픈도어는 이 행동 촉구문을

2026년 말에 아프리카연합(the African Union)과 유엔,
기타 국제 기구 및 세계 각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026년 10월말까지 100만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31일 기준, 전 세계에서 44만 5,192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청원 신청하기]

opendoors.or.kr의
캠페인 후원 - 아프리카 기도
캠페인에서도 참여 가능.

OpenDoors WEEKLY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통해
매주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동역자분들의 참여 코너

어린이 박해지도, 기도여권, 희망의 저금통 활용 후기

예수그이름교회 홍성숙 집사님께서 초등부에서
어린이 박해지도 등의 자료를 활용한 후기를 두 아
이의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료를 활용해 주
시고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와 후원을 해 주시
고 후기까지 보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 영상에서의 내용을 글로 기재합니다.



“어린이 박해지도와 기도여권으로 기도하
면서 느낀 점은 다른 나라가 한 종교를 믿
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살인을 당
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
유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다보니,
내가 당연하게 느끼던 자유가 사실은 큰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핍박받는 어린이들이 이 땅에서처럼
자유롭게 살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모든 용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해받는 교회를 알리기 위한 음원 창작과 수익 후원 약속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본인이 가진 재능을 활용
하여 박해받는 교회를 알리는 음원을 제작하고 그
에 따른 음원 수익을 후원해 주시겠다고 이메일 회
신을 주신 '정성경'님께 감사의 전합니다.

이메일 일부 내용 발췌: 이번 소식지에 박해 소식을
알리는데 자신의 자리에서 함께 행동해달라는 독려
를 받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
던 차에 부족하나마 문화 사역자로서 동참할 아이
디어를 생각하고 실천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픈도어에서 선정한 월드 와치 리스트에 선정하기
독교 박해 국가 78개국의 목록을 집어넣어 그 자작
가사로 노래를 만들고 저작권 등록 후 국내 멜론이
나 지니 등 음악 플랫폼과 Spotify와 같은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물론 유튜브 제 개인채널에도 앞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음원 수익을 오픈도어에 지원할 생
각입니다.



원고 모집합니다.

원고 접수: odsk@opendoors.or.kr로 접수
또는 010-7548-3171로 문자
문의처: 02-596-3171, 010-7548-3171

동역자 여러분들, 박해받는 교회 소식지를 보며 느
꼈던 점이나 도전 받았던 점, 개인이나 가정, 교회
등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기도
회 소식, 오픈도어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활용 후
기, 박해받는 교회의 소식을 더욱 알리기 위한 아
이디어 등의 다양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선정하여 이 곳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이메일 뉴스레터 신청 안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의 소식, 기도제목을
이메일로 매주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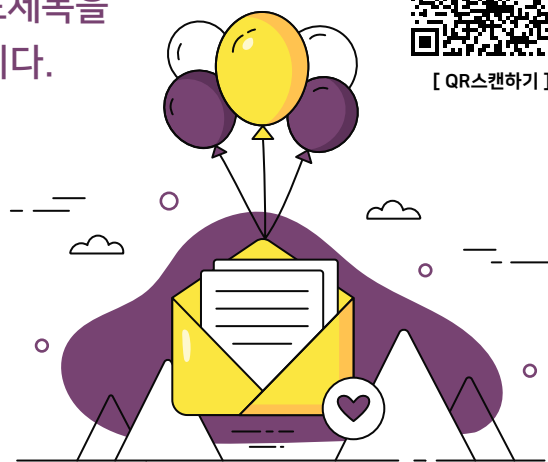
1. QR코드
2. 문자 / 전화 신청 :

성함과 이메일 주소, 이메일 뉴스 신청 

이라고 적어서 010-7548-3171번으로
문자주시거나 전화하여 신청해 주세요.



[QR스캔하기]



화요 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9시까지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화요 기도 모임'을
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따뜻한 분위기로 맞어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를 통해 줌 접속하시거나
전화 02-596-3171로 문의하시면
접속 링크를 문자 등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금요 기도회에 초대합니다

3월 27일 밤 10시, 4월 24일 밤 10시

주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기도회 인도: 김경복 선교사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사무총장)
장소: 헤린교회 (이바을 담임목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26)



나의 희망의 선물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 - 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7000원~)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 - SSTs세미나 등 (30,000원~)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30,000원~)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40,000원~)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40,000원~)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50,000원~)



여성, 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 (50,000원~)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50,000원~)
- 선물9. 박해피해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30,000원~)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60,000원~)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60,000원~)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20,000원~)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 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일시 후원 또는 정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일시 후원

- 후원 항목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세요 (다중 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 휴대폰,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중 하나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2. 정기 후원(매월 자동이체)

아래 내용을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 5일 ○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그녀에게도 이름이 있고,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늦기 전에, 지워질 위기에 처한 기독교 여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 아리아나*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순간 오빠의 손에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리아나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 여성들이 세상에서 지워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박탈당하며 박해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존재를 알아주고, 가치를 인정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줄 바로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 10만 원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박해를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박해 생존 훈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후원하기

후원 계좌: KB 국민은행 029301-04-167093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정기후원

은행이체: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 CMS 선교회

신용카드: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후원 문의: 02-596-3171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감사합니다.

*안전을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OpenDoors**